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16>

October ,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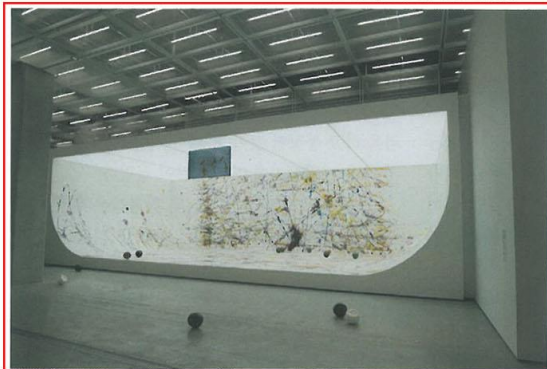
NEWS INSIDE · 국내 전시소식



©백승우, 설치전경, 국립현대미술관,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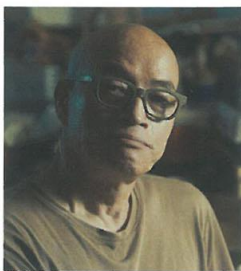
©김을, 걸려시, 2016, 설치전경, 국립현대미술관



©함경아, 안여강 위로 뿜기는 축구공이 그린 그림, 2016, 국립현대미술관



©믹스라이스, 창, 유리 위에 실크스크린,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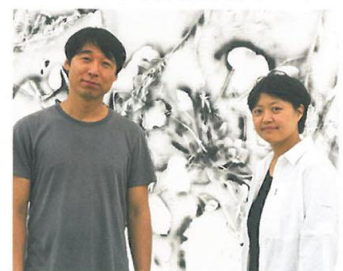
김을



백승우



함경아



믹스라이스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16>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올해의 작가상 2016>전이 8월 31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서울관에서 열린다. '올해의 작가상'은 한국 현대 미술의 독창성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대표 작가들을 후원하는 수상제도로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였다. 매년 관람객과 미술계의 주목을 받는 대한민국의 대표 수상제도로 자리매김한 '올해의 작가상'은 한국 현대미술의 새로운 경향 및 담론을 이끌어내어 한국미술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의 작가상 2016>전에서는 지난 2월 선정된 김을, 백승우, 함경아, 믹스라이스(조지은, 양철모)가 SBS 문화재단의 창작 후원금을 바탕으로 준비한 신작을 선보인다. 제1전시실에서는 김을작가의 실제크기에 가까운 2층 건물을 만나 볼 수 있다. 관객의 출입이 가능한 이 건물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에서 치열하게 창작활동에 몰두하는 예술가의 작업실을 엿볼 수 있다. 제2전시실의 개방공간에서는 다양한 조각과 재가공을 통

해 사진매체의 형식적 한계와 틀을 깨뜨리는 백승우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함경아 작가의 탈북과 정착을 주제로 한 조각, 퍼포먼스, 설치작업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과 다양한 협업을 지속해 온 믹스라이스는 재개발 지역에서 파운 휴를 이용한 설치와 벽화, 영상 작업을 통해 끊임없이 '이주'하는 한국 사회의 현상에 주목한다.

오는 10월 13일(목)에는 각 작가들의 전시 작품에 대한 최종 심사를 거쳐 <올해의 작가상 2016> 수상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수상 작가는 '2016 올해의 작가'로 공표되고 1,000만원의 후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후보 작가 및 최종 수상자의 작품세계를 조망하는 현대미술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 SBS 자상 파와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2016. 8. 31 - 1. 15 | 02-3701-9500 | koreaartistprize.org